

세진전자, 탄소배출권 시장 진출

지분 51% 15억원에 매입 ... 신 성장동력으로 그린사업 확충

세진전자가 탄소배출권 사업을 영위하는 바이오씨디엠을 인수함으로써 신 성장동력을 가동한다.

세진전자는 바이오씨디엠 주식 5만1000주(지분율 51%)를 15억원에 매입한다고 5월4일 발표했다.

바이오씨디엠은 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, 필리핀 바이오매스(Bio-mass) 발전 프로젝트, 인도네시아 바이오가스 플랜트 사업 등 10여 개국에서 CDM 및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세진전자는 바이오씨디엠을 인수함으로써 CDM 사업 등을 신규 수익모델로 추가함으로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(Smart Grid) 외에 신수종 사업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고 자평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5/04>